

<영우화학>

BPO · TMP 수출 확대속 수익성은 악화

영우화학(대표 김기준)은 91년 250억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 90년 215억원대비 16.3%의 외형성장을 이루었으나, 순이익은 90년 12억8000만원대비 1.4% 감소한 12억6000만원에 그쳤다.

수익성이 저하된 이유는 90년 T.M.P공장설립과 91년 과산화수소 증설(일산 40톤에서 60톤으로)에 따른 금융비용 급증과 감가상각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1년 영업외비용은 20억3000만원으로 90년 17억1000만원대비 18.7%, 감가상각비는 28억3000만원으로 90년 22억1000만원대비 28.1% 대폭 증가했다. 금융비용 부담율은 88년 4.6%, 89년 4.7%, 90년 4.0%에 비해 91년에는 6.0%를 보였다.

92년에는 페인트의 주원료인 네오펜틸글리콜과 고순도 과산화수소의 신·증설에 따른 매출증가가 예상, 외형신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고순도 과산화수소수는 영우화학과 일본 스미토모가 50대50으로 합작투자한 삼영순화에 공급해 삼영순화가 반도체용으로 정제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영순화의 공장 생산능력은 연산 5000~7000톤이며, 영업은 올 3/4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영우화학의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

(단위:억원, %)

항 목	1988	1989	1990	1991
매 출 액	172.2	183.6	215.0	250.2
증 가 율	15.8	6.6	17.1	16.3
매출총이익	61.9	55.4	60.4	65.9
영 업 이 익	39.2	30.0	30.5	29.6
경 상 이 익	29.8	19.2	19.3	16.7
당기순이익	20.0	12.0	12.8	12.6
증 가 율	25.1	△39.7	6.5	△1.4
유 동 자 산	82.6	98.5	89.1	109.8
고 정 자 산	149.6	158.1	203.6	200.6
자 산 총 계	253.2	296.8	355.2	386.9
유 동 부 채	67.5	43.9	76.7	122.8
고 정 부 채	55.4	85.7	105.5	85.8
부 채 총 계	123.0	129.7	182.3	208.7
자 본 금	55.0	65.0	65.0	65.0
자 본 총 계	130.2	167.1	172.8	178.2

<표2> 영우화학의 주요 사업별 영업실적 및 전망

(단위:톤, 억원, %)

구 분	1990		1991			1992(예상)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증감률	수 량	금 액	증감률
과 산 화 수 소	11,210	131.0	11,282	132.5	1.2	12,306	141.5	6.8
H Y D R O	5,564	50.9	6,177	57.8	13.6	6,300	63.3	9.6
B P O	517.1	17.5	685.3	26.1	49.6	840.7	33.4	27.6
T M P	302	3.8	2,240	28.5	758.8	3,100	38.2	33.9
기 타	—	11.8	—	5.3	△55.1	—	4.1	△22.6
총 매 출	—	215.0	—	250.2	16.4	—	280.5	12.1

주) 증감률은 금액기준, △는 감소

수익구조는 90,91년에 걸친 지속적인 설비투자로 유상증자 등의 자금유입이 없이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안정적인 외형성장과 제품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현 순이익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별로 보면, 전체 매출액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는 과산화수소는 전방산업인 섬유, 펄프 및 제지 경기침체로 91년 1.2% 성장에 그쳤고, 92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 산 과산화수소의 저가 대량 공세로 일반용 과산화수소의 매출신장은 2~3%에 머물 것이나, 반도체용 과산화수소에 따른 매출증가로 6.8%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의 10.4%를 차지한 B.P.O.와 11.4%를 차지한 T.M.P.는 페인트 원료로 사용되며, B.P.O.의 경

우 91년 일본·중국시장의 확대로 26억1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90년대비 26.1% 신장했으며, 92년에도 비슷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0년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간 T.M.P.는 91년부터 소련 수출이 가능해 28억5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92년에도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

영우화학은 92년 매출을 280억5000만원으로 12.1%의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2/6/1>